

공을 말하지 않고 공을 설명하다

‘상목 스님의 금강경’, 방송 강의 내용 정리해 출간... 각종 예화들며 상세한 해설

육신(이제 주인을 여니 四大空無) 참된 사람이 불 가운데서 웃고 있네(眞人火中笑) 이것은 무슨 물건인가(此是甚麼物) 이 가운데 부처와 조사는 없다(箇中無佛祖)

2000년 12월 28일, 세상이 새해를 앞두고 들떠 있을 때 인공당(印空堂) 상목(象默) 스님은 임종계를 남기고 강화 전등사 극락암에서 원좌에 들었다. 법랍 47세 세납 64세였다.

16세의 어린 나이에 마곡사에서 서운스님을 은사로 득도한 상목 스님은 운주사 불교전문강원 등에서 이력을 마치고 수행에 매진했다. 선 수행으로 기쁨을 높이고 교학을 연마해 종장의 반열에 올라 대강백으로 이름을 떨쳤던 상목 스님은 불국사 강주와 동국대학교 영역위원 등 소임을 맡아 수행했다.

그러나 상목 스님이 남긴 유교(遺稿)는 거의 없었다. 다만, 불교텔레비전(bn)에서 60회에 걸쳐 <금강경>을 강의 했는데 상당한 인기를 얻었다. 전통적인 <금강경> 해석의 기초를 유지 하면서 불자들이 생활 속에서 겪고 느끼는 내용들을 적절하게 끌어다 비유한 것이 시청자들을 매료 시킨 것. 거기에 고승들의 예화나 <금강경>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불교 기초 교리들을 교리해설서 이상으로 상세하게 결집함으로써 방송을 통한 강의의 새로운 맛을 보여줬던 것이다.

상목 스님의 원적 6년이 지난 시점에 스님의 강의 내용을 정리한 <상목스님의 금강경>이 한편의 책으로 나왔다.

32분(分)으로 구성된 <금강경>의 각 분마다 총괄적인 해석을 단 것이 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 간명하지만 각 분의 대의와 의미, 주의 깊게 챙겨야 할 핵심들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누가 뭐래도 <금강경>의 핵심은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 앞에서 일으신 27가지의 의식. <금강경>은 이 27가지의 의식을 곁

줄줄 외우고 다니는 4가지의 '4구제'를 설명하는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네 번 째 '4구제'에 해당하는 '일체유위법(一切有爲法)여몽환포영(如夢幻泡影)...'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들어 보자.

“우리는 현실을 도피할 수 없습니다. 시끄러운 도시를 떠나 절하고도에 있다 해도 현실을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말로는 현실도피가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현실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꿈 꼭꼭다시 거품 이슬 번개와 같은 현상이 유위법인 것 같지만 부처님의 묘관찰지로써 관찰할 때는 유위법이 아닌 열반적정의 모습이라 부처님의 실법과 결코 어긋나지 않는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금강경>은 조계종의 소의경전이고 역대 조사와 선지식들이 가장 애독한 텍스트다. 53명의 해석이 출중하여 '금강경 53가해'란 말도 있지만 우리 시대에도 많은 학자 강백들이 <금강경> 해설서를 내놓고 있다. 무릇 '금강경 100가해'의 시대. 그러나 부처님께서 수보리 존자를 통해 전하는 지극한 가르침을 오히려 전하는 선지식을 만나기란 쉽지 않다.

<상목 스님의 금강경>은 제자인 장운 스님(전등사 주지)의 원력으로 발간됐다. 장운 스님은 “몇 해 전부터 스님이 남기신 법음을 녹취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수정 보완 및 감수를 거쳐 이 책을 펴내게 됐다”며 “스님의 자상한 가르침을 되살리면서도 세상에 널리 알리게 되어 송구스러움을 조금이나마 덜게 되었다”고 말했다.

임연태 기자 yjim@buddhapia.com



상목 스님



상목 스님의 금강경 조계종출판사 1만5000원



장운 스님

아주는(27斷疑)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상목 스님 역시 이 27가지 의문을 아주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금강경>의 골수를 전하고 있다.

공(空)을 설명하는 지극한 가르침이 <금강경>이지만 정작 경전 속에는 ‘공’이란 글자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상목 스님은 ‘모행무주본’에서 아주 쉽게 <금강경>의 대의를 설명한다.

“<금강경>은 우리가 한 행위를 집착하거나 머물지 말라, 미련과 아쉬움을 남기지 말라, 하찮은 일로 생색을 내면서 추잡스럽지 말라, 어떤 일에도 머뭇거리지 말고 전진하라라는 것을 일러 줍니다.”

상목 스님 역시 ‘공’이란 글자를 끌어다 지 않고 공을 실현하는 삶의 길을 열어주고 있다. <금강경>의 핵심이라 하여 불자들이

인간을 가장 사랑한 부처님...그 생애를 배워라

동양 고전과 철학을 오랫동안 연구해 온 저자가 가장 큰 관심을 갖게 된 부처님의 생애. 저자는 세계 어떠한 성인보다도 인간에 대한 사랑이 가장 강렬한 분이 바로 부처님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저자는 부처님의 기록된 생애를 바깥세상에 널리 알리고 싶었다. 저자가 소설이라는 비교적 흥미를 끄는 문학장르를 선택한 것도 종교와 상관없이 여러 사람에게 읽혀지게 하고 싶은 욕심에서다.

이 책은 부처님 탄생 전부터 인간으로 태어나고 행을 겪고 깨달음을 얻기까지의 과정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책은 ‘부처님 탄생 전’과 ‘부처님의 생애’ ‘근본 교리’ 등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특히 ‘생애편’에서는 출가 이전과 출가 이후 고행, 깨달음, 교화에 열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드라마틱하게 구성해 놓아 책장이 가볍게 넘어간다.

마지막장에 나와 있는 ‘근본교리’ 편에서는 팔정도, 계정해, 3학, 12연기 등 교리적인 해설도 곁들여 놓아 초심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부처님의 생애 주선 엮음 중형 | 9000원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명상은 ‘강아지 길들이기’와 비슷한 것

최근 몇 년전부터 불어닥친 명상열풍이 웰빙 바람에 편승해 요즘도 거세다. 명상이란 무엇일까? 또한 마음을 살펴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 많은 이들의 관심이 이쪽으로 쏠리는 것일까? 저자는 이 두 질문에서 출발해 명상의 의미와 목적, 실용적인 수행법 등을 갖가지 일화와 유머, 통찰로 버무려 놓아 읽기가 우선 편하다.

이런식이다. 저자는 명상이 강아지 길들이기와 비슷하다는 것이다. 강아지에게 “가만히 앉아 있어!” 이렇게 소리치려면 강아지가 말을 듣겠느냐고 저자는 반문한다. 강아지는 발뼀질이나 도망칠 것이고, 쫓아가 다시 잡아 앉히면 다시 경중뛰거나 난리법석

을 피울 것이라네 저자의 생각이다. 이런 현상을 저자는 우리 마음에 빚대어 설명한다. 저자는 “우리 마음은 강아지와 아주 흡사합니다. 다른점이라면 우리 마음들이 강아지보다 더 엄청난 난장판을 벌인다는 것입니다. 마음이나 강아지를 길들이 때에는 자꾸 자꾸 반복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태국과 미얀마, 인도 등지에서 수행했으며, 1974년부터는 세계 곳곳에서 명상수행을 지도하고 있는 저자의 화려한(?) 수행이력에 걸맞게 이 책을 통해 저자는 명상 수행이 까다롭고 심오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이라길 깨닫게 해준다.

김주일 기자



마음의 숲을 거닐다 책콘필드 지음 이현철 옮김 한인 | 1만9000원

중국불교 현장답사 생생한 ‘보고서’

어디론가 떠난다는 것은 모험이지만 ‘환희’다. 환희단신 생면부지의 사람들을 만나고 스스럼없이 첫 인사를 나누며 돈독한 정을 쌓아가기 때문이다. 이 책은 저자가 운수 남자의 모습으로 중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발로 쓴 여행기다.

저자는 사진기를 목에 걸고 옛 선지식들이 머물렀던 절을 찾아 낯설은 중국땅을 헤매는게 일종의 구법을 향한 만행이라 생각하고 다녔다.

그 만행속에서 저자는 관광지화된 북경 근교의 사찰 모습을 보며 중국불교의 험난했던 법과 문화혁명의 폐해를 읽었다. 하지만 이 모습은 저자가 본 중국불교의 한 단

면도 불과했다. 더 많은 곳을 돌아다니며 저자는 중국불교가 새롭게 부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저자는 “문화혁명때 파괴됐던 사찰 대부분이 활발히 불사하고 있는 광경을 지켜보며 중국불교가 그 옛날 화려했던 모습을 되찾기 위해 비상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고 털어놨다.

또한 저자는 “수많은 여정중에서 양주 근민사에서 300여 사부대중이 함께 참선하는 모습, 석상사 무문관의 용맹정진 모습 등은 지금도 있을 수가 없다”고 부러워하는 감정을 내비쳤다. 이 책에는 중국의 3대석굴과 4대 불교성지를 비롯해 티베트 사찰들도 자세히 소개돼 있다.

김주일 기자



환희/중국사찰기행1 정은 스님 지음 솔바람 | 1만1000원

김 모락모락 나는 밥~ 그 보다 따뜻한 이야기들

불교방송 심야프로그램 ‘살며 생각하고’를 진행하고 있는 김사인 동덕여대 문예창작학과 교수가 산문집을 펴냈다. 제목은 ‘따뜻한 밥 한그릇’.

이 책은 국밥집에서 주인 할머니에게 나이도 많은데 집에서 쉬지 왜 힘들게 일하느냐며 걱정해주는 손님과 되려 건강에 안 좋으니 술 좀 그만 먹으라고 엄려해주는 주인 할머니와의 정겨운 대화, 마음의 벗, 차 한잔의 여유 등과 같이 저자가 일상에서 보고 느낀 단상들을 다소 어눌한 어투로 적어 놓았다. 또한 이 책 곳곳에 들어 있는 원로 사진작가 신철균씨의 흑백 사진들은 읽은이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화롯불 역할을 해준다.



따뜻한 밥 한그릇 김사인 글 | 신철균 사진 큰 나 | 9000원

금주의 베스트 불서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문없는 문, 빗장을 열다	김성우	클리어엔드
2	살아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법정	조화로운 삶
3	하루 108배 내용을 살라는 10분의 기적	김재성	아름디어
4	스님 마음이 불만족	법륜	정토
5	햇기울을 부수고 오나라	성철	창경각
6	꽃비	원성	마음의 숲
7	맑고 향기롭게	법정	조화로운 삶
8	오래투지	한경혜	작가의 집
9	붓다로부터 배우는 재니교육의 지혜	민병직	운주사
10	이행가 요가	MKSO행가	한천

불서출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모든 불교서적이 모이는 곳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전화 02)3672-7181 팩스 02)3672-7188

5,175자 장엄한 불교 최고의 경전 금강경 족자

2007년 정해 돼지해에 부처님 가피가 충만하시기를 삼가 기원 드립니다.

금번 소개하는 금강경 이 작품은 방대한 금강경 5,175자를 延潭스님이 각고의 노력으로 족자 한 면에다 글본으로 직접 써서 정성들여 만든 최고의 작품입니다.

불자라면 누구나 有人持用(유인지용) 法布施(법보시)로 각 가정에 한 점씩 소장하여 受持讀誦 爲人演說(수지독송 위인연설) 하면 信(신) 解(해) 行(행) 證(증) 七佛通偈(칠불통게)로 金剛道場(금강도량)에 앉아 佛果(불과)를 성취하고 성불에 이르십니다. 특히 三災(삼재)에 해당되는 巳 酉 丑(병, 닭, 소) 띠 생은 入三災(입삼재)해 2007 丁亥年에 장엄한 금강경 족자 한점씩을 소장하신다면 善根(선근) 回向菩提(회향보리)로 能淨業障(능정업장)하십시오.

善根功德(선근공덕)으로 삼재에서 벗어나고 모든 재액이 소멸되며 각 가정이 富貴尊榮(부귀존영) 得福甚多(득복甚多)하십시오.

◆ 가격 : 32만원 → 16만원 ◆ 200개 한정판매
◆ 크기 : 세로 180cm X 가로 78.5cm (양면은 14K골공으로 되어있습니다.)

방대하고 장엄한 금강경 족자를 불자님 누구나가 부담없이 한점씩 소장할 수 있도록 저렴한 보시가격으로 드리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한점씩 법보시 하십시오.

持經功德(지경공덕)으로 그 어떤 물건과도 비교가 되지 않으며 우주전 만유에 찬란히 빛나는 21세기 부처님 최고의 선물 재산목록 1호가 될 것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한점씩 구입하십시오.(선착순 200개 한정판매 합니다.)

■ 입금통장 계좌번호 : 하나은행 301-127443-00207 (예금주: 김근환)

삼불사금강불교문화연구원

부산시 진구 부전1동 477-27번지 리베라 원룸 601호
전화 051)806-0316 / 휴대전화 011-488-0316 정담 延潭 韓堂

국내 최초로 동양상담에 주목하는

동양상담학 시리즈 ①~⑨

① 마음과 상담	② 불교와 상담	③ 신문론과 상담
④ 논어와 상담	⑤ 퇴계 유학과 상담	⑥ 도덕경과 상담
⑦ 모리타 상담	⑧ 나이칸 상담	⑨ 동사설 상담

박성희 저 4x6판 · 양장 · 각권 7,000원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고유한 상담의 모습을 찾는다

상담의 발생지가 서양이다 보니, 서양에서 들어온 지식을 그대로 적용해왔던 것이 현실이었다. 한국 사람에게 어울리는 상담 지식을 찾아내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없을까, 어떻게 하면 한국적 문화와 역사와 전통을 반영한 상담 이론을 구성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 끝에 한국인의 일상생활에 스며 있는 삶에 대한 철학과 사상과 문화적 전통을 뒤져 보자는 고민을 하게 되었고, 이 시리즈는 이와 같은 고민의 발로이다.

<p>뜻의 심리학</p> <p>뜻의 심리와 서양 심리학 동양의 조화로움 만남</p> <p>마크 엡스타인 저 · 전현수 외 공역 304p · 신국판 양장 16,000원</p>	<p>마음챙김 명상과 자기치유 상, 하</p> <p>존 카버전 저 · 정현갑 외 공역 284/352p · 신국판 · 반양장 · 각권 10,000원</p>	<p>요가 첫걸음</p> <p>샌드라 에데스의 공저 · 조유경 외 공역 252p · 국어번역판 · 반양장 · 20,000원</p>
--	---	--

“학자시는 깨끗한 마음을 드립니다.”